

09월 02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방향성과 변동성 인디케이터

서울, 9월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미국 고용지표 결과를 기다리며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20-1345원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을 통해 뚜렷한 금리인하 신호를 보낸 이후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지만 시장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8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결과를 통해 금리 인하폭과 속도를 가늠할 전망이다.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됐지만, 경기 연착륙에 대한 시장 확신은 아직 떨어진 다. 이번 주에는 미국 ISM지수와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달 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한 배경에는 미국 제조업과 고용지표 악화가 있었다. 7월 미국 실업률은 4.3%로 뛰어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8월 고용 결과를 통해 허리케인 영향에 따른 일시적 요인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기와 금리 인하 기대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 중인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기대는 채우는 그런 지표 결과가 나올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전주 글로벌 달러는 100.5선에서 지지력을 확보하며 반등했다. 한편, 글로벌 기술주는 강세 분위기를 회복하며 추가 랠리에 시동을 걸 조짐을 보인다.

9월에는 통상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달이다.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 글로벌 달러는 양방향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달러/원도 마찬가지다.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률을 기록한 달러/원은 9월 중 글로벌 달러 따라 단기 방향성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9월 FOMC 회의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은 더욱 클 수 있다. 이에 금주 환율은 고용 결과를 확인하기 이전에 최근의 레인지 장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여지가 커 보인다.

국내에서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로는 7월 국제수지(잠정)와 8월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있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5대 이슈

9월에는 미국 고용지표가 다른 재료를 압도하고 있다.

⊙ 美 고용지표에서 단서 찾기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정책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6일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를 통해 연준이 향후 몇 달 동안 얼마나 공격적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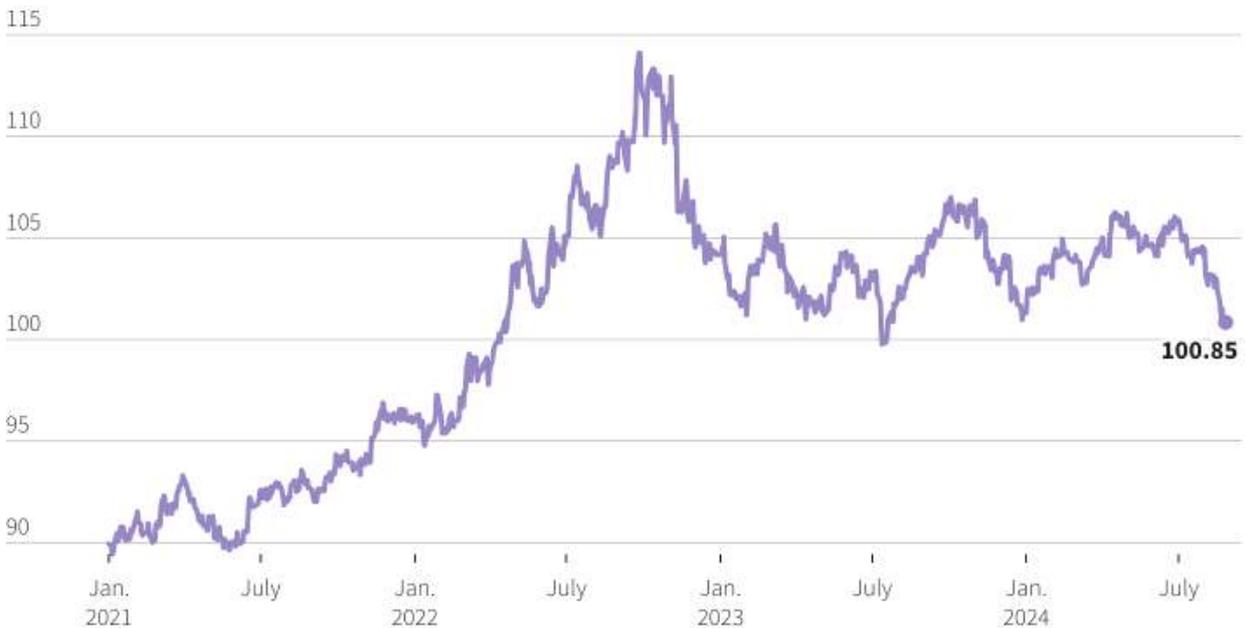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고, 시장은 9월17~18일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월 말과 8월 초 시장을 뒤흔든 노동시장 약세의 추가 징후가 나타나면 경기침체 공포가 되살아나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투매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임박한 통화정책 완화로 인해 금리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US dollar slumps to 13-month low as Fed signals rate cut

The dollar index, which measures the U.S. dollar's value against a basket of major currencies, has fallen to its lowest level since July 2023.



Note: The index assigns varying weights to the euro, Japanese yen, UK sterling, Canadian dollar, Swedish krona and Swiss franc. Latest data as of Aug. 26.

Source: LSEG | Reuters, Aug. 27, 2024

⊙ 변동성 경계

8월 초 일본은행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도세와 변동성 확대로 급락했던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고치까지 반등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 주식 시장 변동성이 9월과 10월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씨티 전략가들은 향후 주식 시장 변동에 대한 시장 기대치.VIX가 너무 낮다고 했다.

지난 8월 매도세는 일본보다 훨씬 높은 미국 금리에 베팅한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며 촉발됐다. 투기꾼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자산을 팔았고, 이는 미국 기술주에서 약 1조 달러가 사라지는데 일조했다.

이후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주식과 채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동했지만, 데이터 서프라이즈는 외환시장을 교란하고 추가적으로 자산 간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

○ 프랑스와 독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프랑스는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로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회당과 녹색당은 마크롱과의 추가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프랑스 증시를 외면하고 있다. CAC지수는 마크롱이 조기 총선을 발표하기 전인 6월보다 5%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올해 들어 거의 상승하지 않은 반면, 독일 주가는 12% 상승했다.

독일도 자체적인 문제는 있다. 9월1일에는 동쪽 두개 주에서 2025년 연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를 뒤흔들 수 있는 선거가 실시된다. 포퓰리즘 정당은 선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는 2분기에 0.1% 감소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Ifo 연구소장은 경제가 점점 더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프랑스에 집중된 시장 관심은 곧 독일로 옮겨갈 수 있다.

○ 주눅 들지 않는 BOJ 매파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급격한 매파적 전환에 따른 8월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 관계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인플레이션이 BOJ 예상대로 전개될 경우 통화 긴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향방은 아직 불투명하다. 도쿄 CPI는 8월 2.4%로 상승해 BOJ 목표치인 2%를 상회했지만,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근원 지표는 1.3%에 불과했다.

8월 말에 발표된 소매판매 수치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가계 지출은 작년 2월 이후 매달 감소하고 있다. 가계지출 지표는 9월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중국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

케냐,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아프리카 정부 관계자들이 제9회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향한다.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회의는 양측 주요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연간 대출액은 46억달러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한창이던 2012~2018년의 100억 달러 이상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러한 감소는 중국 국내 압박과 에티오피아, 케냐, 잠비아 등 아프리카 경제의 부채 문제 때문

이다.

아프리카 관리들은 중국으로부터 금융 및 투자 확대에 대한 약속을 받고자 하는 반면, 에티오피아는 부채 구조조정 협상에 집중할 것이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美 증시 랠리 신호, 주목받는 고용지표

뉴욕, 9월2일 (로이터) -

시장이 고용지표와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가운데 미국 증시의 상승세 확대는 기술주에 대한 집중을 우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무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엔비디아NVDA.O와 애플AAPL.O과 같은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과 하락이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은 저금리 수혜가 예상되는 가치주와 소형주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연준은 9월 17~18일에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투자자는 지난달 상승세를 보이다 8월 초 매도세로 주춤해진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는 시장 랠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 베팅 수혜를 입은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S&P500 지수의 연간 상승률의 약 4분의 1인 18.4%를 차지한다.

찰스 슈왓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리즈 앤 손더스는 "어떻게 분석하든 상당히 의미있는 확장을 보았고 이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슈왓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S&P500.SPX 종목의 61%가 지난 한 달 동안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기록한 반면, 지난 1년간 이들 종목은 14% 초과수익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순환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BofA 글로벌 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예상보다 약한 미국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발표된 7월 11일 이후 엔비디아, 테슬라 TSLA.O, 마이크로소프트 MSFT.O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들은 S&P 500의 나머지 493개 종목보다 14%p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주 초 엔비디아의 실적이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후에도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기술주를 넘어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로 볼 수 있다.

네드 데이비드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시장 폭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실적 성장과 수익성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하는 주식이 늘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지수는 7월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이달 저점 대비 8.5% 상승했다.

UBS 글로벌 웰스메니지먼트의 미국 주식 대표 데이비드 레프코위츠는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노동 시장이 우려할 만한 속도가 아닌 안정적인 속도로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더 광범위한 시장 반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발표 중 하나로 지금은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버 캐피탈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제이슨 알론조는 투자자들이 특히 변동성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술주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주는 2025년까지 매 분기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 수익은 15.3%로 S&P 500 전체 수익의 7.5% 상승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론조는 "사람들은 때때로 멋진 달리기 후에 심호흡을 하고 다른 기회를 바라보지만, 기술은 여전히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이며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AI가 무죄라는 테마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9월2일 (월)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미국 증권위원회(SEC) 상임위원 면담 (10: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회 정기회 개회식 (14:00)

9월3일 (화)

- ⊙ 통계청: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08:00)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MOEF - BOK - KDI - RBWC 컨퍼런스 (13:30~1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14:00)

9월3일 (수)

- ⊙ 한국은행: 2024년 8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본 출장 (06:00)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MOEF - BOK - KDI - RBWC 컨퍼런스 (09:30~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교섭단체 대표연설 (10:00)
- ⊙ 금융감독원: 원장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 (10:00)
- ⊙ 기획재정부: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결과 (16:00)

9월4일 (목)

-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08:00)
- ⊙ 한국은행: 총재 BIS 총재회의 참석(5~11일, 스위스 바젤)

9월5일 (금)

- ⊙ 한국은행: 2024년 7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10:5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9월2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9월2-6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8월		1,219.1B
9월2-9일	23:00	미국	자동차판매	8월		3.000M
9월2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8월		49.5
9월2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8월	50.0	49.8
9월2일	17: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8월	45.6	45.6
9월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8월		48.0
9월3일	23:00	미국	건설지출 MM	7월	0.0%	-0.3%
9월3일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	8월	47.5	46.8
9월4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8월		52.1
9월4일	17:00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확정치	8월	53.3	53.3
9월4일	18: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7월	0.3%	0.5%
9월4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8월30일 주간		226.9
9월4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7월		9.9%
9월4일	23:00	미국	JOLTS 구인건수	7월		8.184M
9월5일	18:00	유로존	소매판매 MM	7월	0.2%	-0.3%
9월5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8월		25.885k
9월5일	21:15	미국	ADP 전국고용보고서	8월	145k	122k
9월5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26일 주간	230k	231k
9월5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8월		55.2
9월5일	23: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8월	51.1	51.4
9월6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7월	1.2%	-1.4%
9월6일	18:00	유로존	고용 확정치 QQ	2분기	0.2%	0.2%
9월6일	18:00	유로존	GDP 수정치 QQ	2분기	0.3%	0.3%
9월6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8월	165k	114k
9월7일	17:00	중국	외환보유고	8월		3.256T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9월2일 (월)

- ⊙ 휴장국가: 미국, 캐나다

9월4일 (수)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오후 10시45분)

9월5일 (목)

- ⊙ 일본은행 다카타 하지메 정책위원 연설 및 기자회견
- ⊙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SAFE), 양질의 발전 촉진 관련 기자회견. 루레이 중국인민은행 부
행장 · 리홍안 SAFE 부주임 참석 (오후 4시)

9월6일 (금)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외교협회 주최 행사서 연설 (오후 9시45분)
- ⊙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노트르담대학교 행사서 연설 (7일 오전 0시)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해리스,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 확대..여성·히스패닉 지지

워싱턴, 8월30일 (로이터) -

미국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대선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45% 대 41%로 앞서며 11월 5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열기를 불러일으키며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가 등록 유권자 사이에서 4%포인트의 우위를 보인 것은 7월 말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1%포인트 앞섰던 것보다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28일까지 8일간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2%포인트였으며, 해리스가 특히 여성과 히스패닉계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는 여성 유권자와 히스패닉 유권자 모두에서 49% 대 36%, 즉 13%포인트 차이로 트럼프를 앞섰다. 7월에 실시된 네 차례의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9%포인트, 히스패닉계 유권자 사이에서 6% 포인트 앞선 바 있다.

트럼프는 백인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모두 7월과 비슷한 격차로 선두를 달렸지만,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리드가 7월의 14%포인트에서 최근 조사에서 7%포인트로 축소됐다.

해리스는 전국 여론조사와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다. 로이터/입소스를 포함한 전국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견해에 대한 중요한 신호를 제공하지만, 선거인단의 주별 결과가 승자를 결정하며, 몇몇 격전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네바다 등 2020년 선거가 가장 접전이었던 7개 주에서 트럼프는 등록 유권자들 사이에서 45% 대 43%로 해리스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요일 늦게 발표된 별도의 블룸버그뉴스/모닝컨설트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각 주에서 트럼프와 동률이거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7개 주의 등록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를 2%포인트 앞섰고, 잠재적 유권자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동률인 1%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 범위는 7개 주 전체에서 1%포인트였다.

트럼프의 2020년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공화당 선거 전략가 매트 울킨은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러한 수치 변화를 고려할 때 해리스와의 대결이 트럼프에게 더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신의 쪽으로 기울고 있는 유권자들을 "겁주지 않도록" 선거 운동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등록 유권자의 약 73%가 해리스가 경선에 뛰어들 후 11월에 투표하는 것이 더 기대된다고 답했다. 그리고 3월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1%가 주로 트럼프를 막기 위해 투표한다고 답한 반면, 8월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지지자의 52%는 주로 트럼프에 반대하기보다는 후보로서 해리스를 지지하기 위해 투표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지지자들도 64%가 해리스에 반대하는 것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더 큰 동기 부여가 되었다고 답하는 등 트럼프 후보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유권자들은 미국 경제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인물로 45% 대 36%로 트럼프를 뽑았다.

반면 해리스는 낙태 정책에 대해 47% 대 31%의 우위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조사 기간은 해리스가 당의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한 8월19~22일 민주당 전당대회와 부분적으로 겹쳐, 해리스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3,562명의 등록 유권자를 포함하여 4,253명의 미국 성인으로부터 응답을 수집했다.

여론조사가 진행중이던 8월23일 선거운동을 중단한 무소속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의 6%의 지지를 받았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中 금리 개혁은 '힘들고 긴' 과정이 될 것

베이징, 8월30일 (로이터)-

중국인민은행은 대출 규모보다는 금리를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바꾸고자 하지만 유동성 리스크와 시장의 비협조로 인해 국가 주도의 은행 대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7월 약 10년에 두 차례 열리는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에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목표가 재확인됐으며, 인민은행이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달 동안 인민은행은 시장 주도의 금리 곡선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신용 수요가 통화 정책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규제 당국은 이러한 변화가 대체 자금 조달원으로서 자본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져 국가 주도 은행 시스템에 의한 낭비성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산업 단지를 현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 유동성 수요는 상당하다. 시장은 인민은행이 국가 개발 목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인민은행과 채권 시장 간 줄다리기 속 채권으로 안전자산이 유입되면서 국채 수익률은 중국의 성

장 전망에 대한 약세 베팅을 시사하는 수준까지 하락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채택한 방식으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다. 변화의 속도는 느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금리 곡선의 단기 부분을 목표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채권 거래를 점진적으로 늘려 장기 차입 비용에 영향을 주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책 전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자문은 "시장 기반 금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는 힘든 작업이고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와 정책 고문들은 향후 개혁에는 신용 가이드를 포함한 유동성 공급 수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 유동성 수요

신용 가이드 및 기타 정량적 도구는 은행이 시장 수요와 관계없이 대출하도록 장려한다.

이로 인해 대출자가 예금이나 자산 관리 상품에 돈을 예치하며 은행에 다시 돌려놓는 경우가 많기에 금융 시스템에 유휴 자금이 쌓이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

연간 경제 생산의 약 3배에 달하는 부채 수준과 올해 약 5%로 설정된 야심찬 연간 성장 목표에 따라 해마다 더 많은 유동성을 투입해야 한다.

ANZ의 싱 자오핑 수석 중국 전략가는 인민은행이 경제 지원을 위해 매년 약 2조 위안(2810억 달러)의 신규 유동성을 투입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에서 가장 먼저 통화 정책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6월 말 현재 MLF 미상환 잔액은 7조 700억 위안(9946억 달러)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5.6%에 달한다.

ING의 린 송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MLF가 장기 자금 조달에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 문제

시장이 다른 유형의 투자보다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해 인민은행이 금리를 조기에 완화할 경우 수익률 곡선이 역전될 수 있다고 ANZ의 싱 전략가는 말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신호로, 중국의 경우 위안화 약세와 자본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

싱은 "금리를 완전히 자유화하면 개입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시장에 맡기면 조작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금 조달 성장에 있어 자본 시장의 역할을 늘리려면 금리 개혁과 함께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주식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주를 이루고 유동성이 부족해 종종 '카지노'로 불린다. 채권 시장은 정부 소유의 발행사가 주도하고 은행이 주요 투자자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 소득이 낮기 때문에 개인 연금 및 보험 시장이 작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이로 인해 이러한 자산에 대한 자본 풀은 얇다.

또한 중국은 자본 계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외국인 금융 투자자 유입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자본 시장 발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공개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퀴즈 이코노미스트는 "장기 금리와 관련해 인민은행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장기 개혁 의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